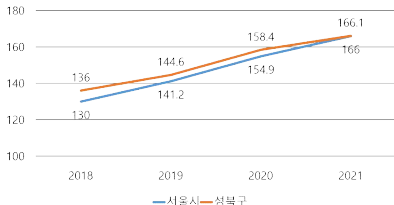


노인 복지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져 2021년 평균수명 83.6세에 도달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노인분들이 느끼는 고독감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예정이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 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인분들이 노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노인 복지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성북구 노령화지수를 알아보고 성북구 노인분들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노인분들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노인 복지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 예정이다.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란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이다.

2018년 서울시 노령화지수는 130명에서 2021년 **166명**까지 올랐고, 성북구 노령화지수는 2018년 136명에서 2021년 **166.1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항상 성북구의 노령화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성북구 노령화지수



지난 5년간 노령화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 노령화지수는 2014년(103.8%)에 100%를 넘겼고 매년 빠르게 상승 중
- 전년 대비 노령화지수는 2020년 13.9%p, 2019년 8.6%p, 2018년 7.0%p 상승함
- 성북구(159.5%)의 노령화지수는 **전국(134.7%) 대비 24.8%p**, 서울시(156.8%) 대비 2.7%p 높았음
- 총부양비는 37.7%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으며, 노인부양비는 1.3%p 증가함
-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는 4.3명으로 매년 감소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노후생활자금 준비

(단위: %)



성북구민의 65.7% 노후생활자금 준비 중

- 성북구 노후생활자금 준비 비율은 65.7%
 - 준비 비율은 40대(85.5%)와 50대(82.0%)에서 비교적 높았지만, 60세 이상(66.5%)의 준비 비율은 비교적 낮았음
- 노후생활자금 준비방법으로 **'연금'(68.2%)**, '은행저축'(56.4%), '보험'(46.6%)을 선호함
 - '직업별로 무직/기타 계층에서 '자녀가 책임질 것임'(38.3%), '주택규모 줄여 수익창출'(26.8%) 응답이 비교적 높았음

(출처: 2021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 복지 서비스 중 '노인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 확대' 우선 개발

- 노인 복지 서비스(1+2순위 기준) 중 **'노인일자리 제공'(47.7%)**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확대'(46.8%), '소외노인 지원강화'(39.0%), '노인문화예술축제 활성화'(26.0%) 순으로 나타남
- 이전보다 '의료서비스 확대', '소외노인 지원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출처: 2021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부확인부터 일상지원까지 맞춤형 돌봄으로

건강한 노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선정기준: 서비스 신청 후 자격 조회 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 수행기관: **4개소**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삼선동, 둔암1동, 둔암2동, 길음1동, 길음2동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 안암동, 보문동, 월곡1동, 월곡2동, 장위1동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성북동, 동선동, 정릉1동, 종암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 사업내용: 안전지원(IoT사업),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신분증 지참)